

김정렬 차관, “부산지역 현안문제 해결 적극 지원”

18~19일 이틀간 부산역·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 등 찾아 지역 현안 논의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2.18~19일 이틀간 부산지역의 철도와 공항 시설 등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고, 지역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해 부산 지역을 방문하였다.
- 특히, 부산역 철도시설 안전상황을 점검하고,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, 쇄도도심재생 관련 용역, 김해신공항 등 현안문제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.

《첫날(12.18일), 부산역, 철도시설재배치, 용역 관련 현장 방문》

- 부산역에 도착하여 최근 일제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선로전환기의 점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, “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 철도운영기관과 종사자들이 선로전환기 이외에도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해 작은 부품, 구성품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점검을 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또한, 통합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역 일원 재배치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계획을 보고 받고, “부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추진되게 된 만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효율적인 원도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”을 다해 달라고 하면서, 경부선 지하화 및 부전역 복합개발 사업 등 철도시설관련 지역현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.

- 이후, 남구청으로 이동하여 ‘쇠퇴도심 재생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연구’ 용역에 대한 추진내용을 청취하고, 연구의 사례 분석 지역 중 하나로 검토 중인 용호동 일대를 직접 둘러보았다.
- 현장을 둘러본 후, 김 차관은 ‘아직까지 국내에 도입사례가 없는 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트램의 친환경성, 교통약자 이용편의성, 도심재생 등 장점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’하다고 강조하였다.

《둘째날(12.19일), 김해공항, 김해신공항 예정지 방문》

- 김해공항을 방문한 김 차관은 국제선 터미널을 돌아보고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경량구조 형태의 임시터미널 설치방안 등 현재 추진 중인 다각적인 혼잡완화 방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이후, 김해신공항 부지를 찾아 “김해신공항은 영남지역 주민들의 항공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하면서
-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,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 없이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2018. 12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